법산 스님 등 승가학원 이사 선임

5월 21일 이사회서… 해주 · 본각 · 정안 · 성행 스님도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로 법산 · 해주 · 본각 · 정안 · 성행 스님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사장 원행)은 5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1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선임 및 2018년도 법인 및 대학 자금운영결산 심의안건 등이 처리됐다.

이사회에서는 오는 6월 15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4명의 후임이 선출됐다. 기존 법산 · 해주 · 정안 스님은 유임됐으며, 효탄 스님 후임으로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장으로 지난 4월에 취임한 성행 스님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됐다. 감사 우하 스님은 유임이 확정됐으며, 약사암 일심선원 한주 성곡 스님이 신임 감사로 선임됐다.

이사회는 지난 2018년도 법인 및 대학자금운영결산을 심의했으며 법인 및 대학 합산결산 61억6355만8091원을 승인했다.

앞서 이사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총장 스님이 취임 이후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사 스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보광 스님, 교비 횡령 혐의 '무죄'

대법원 5월 16일 '검사 상고 기각' 판결



교비 횡령 등으로 쟁송 중이었던 동국대 前총장 보광 스님<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5월 1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 스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보광 스님은 총장 선출 의혹을 제기한 학생 4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발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광 스님은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교비로 지급하게 한 의혹을 한 불교시민단체로부터 받았으며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재판 결과 1심은 보광 스님의 횡령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교비 지출은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 의한 과실임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사전에 이를 지시했거나 사후 이를 승인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보광 스님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지후 홍미정 담당변호사는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더 이상 관련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신도 연수, 수행으로 전환

5월 31일, 봉정암 시작으로 6개월간 총 5회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가 2019년 신도조직 실무자 연수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대표 수행도량 5곳을 순례하는 '2019 수행바라미' 정진 연수를 시작한다.

첫 번째 수행바라미 정진 연수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봉정암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1박 2일에 거쳐 참배 및 기도 정진하게 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주최하고 중앙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연수는 대한불교조계종 신도 신행체계 확립을 위해 '재가자를 위한 5대 수행법'(계율 · 간경 · 염불 · 참선 · 보살행)을 매회 주제로 삼아 진행된다.

신도단체 실무자 연수는 그동안 미얀마, 인도 등 해외서 진행됐지만 수행 정진 차원에서 올해부터 국내 5대 기도처에서의 수행연수로 전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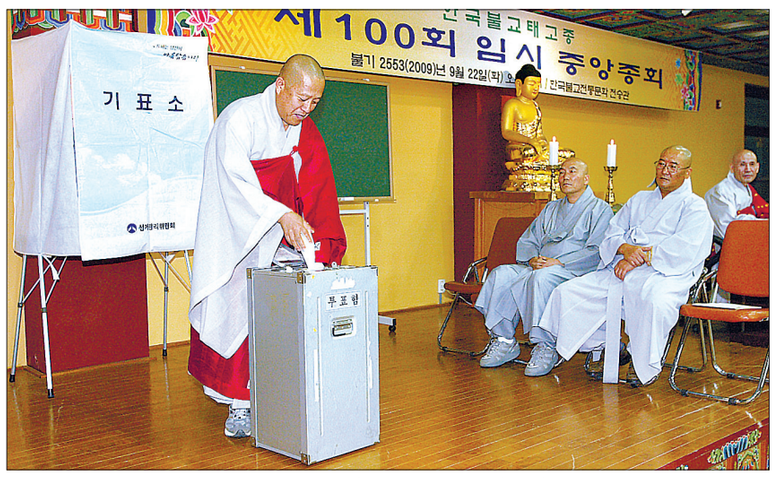
참가 대상은 종단등록 신도단체 및 유관단체 실무자로 회차별 각 20여 명씩 모집해 10월까지 5차례 실시한다. 실무자들은 연수를 통해 5대 수행법에 대한 법문을 듣고, 정근과 참선을 집중 수행하게 된다.

노덕현 기자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시동… 마찰 예상

6월 27일 확정, 호명 · 성오 · 능해 · 지홍 스님 하마평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27대 태고종 총무원장 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하지만 총무원 집행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사진은 제24대 총무원장 선거 당시 투표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에 대한 불신임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현재, 차기 총무원장선거 일정이 확정됐다. 사회법에 따른 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물러나지 않으려는 집행부 측과 불신임 결정을 내린 중앙종회 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5월 22일 제27대 태고종 총무원장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선거일은 6월 27일 오전 11시이며, 선거장소는 미정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30일 오후 2시까지.

총무원장 후보자 자격은 종단 재적승으로 연령 55세, 승랍 3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이어야 한다. 제적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공권정지 징계를 받고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찰분담금 미납자, 승려의무금 미납자 등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선거인단 선출기간은 6월 4일까지다. 다만 현재 종무행정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어 제26대 총무원장선거 당시 교구별 선거인단 배정수를 준용키로 했다. 선거권자는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장 선거인단, 전국시도교구종무원장 및 본산급 사찰 주지(봉원사 · 선암사 · 청련사 · 법륜사 · 백련사)다.

현재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4~5명으로 압축된다. 순천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과 총무원장 직무대행 성오 스님, 지난 총무원장선거에 출마한 인천 용궁사 주지 능해 스님과 前태고보우승가회장 지홍 스님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후보자 등록 5월 30일까지
연령 55세 · 승랍 30세 이상
선거인단 선출 6월 4일까지
편백운 총무원장 소송 대응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와 원로회의를 거쳐 불신임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은 사회법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어 종단 내홍이 한차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편백운 스님은 현재 자신의 불신임 무효 소송과 직무대행 성오 스님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총무원 측은 △8명의 종회의원이 총무원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한 업무상배임 및 횡령이 지방검찰청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된 점 △법원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총무원장 직무대행과 중앙종회 불신임 결의, 차기 총무원장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무원 관계자는 "사회법 제소 결과가 총무원장선거에 앞서 6월 중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과와 무관하게 선거는 총무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진 종회의원들 중에 승려의무금을 내지 않은 인물이 많다. 의무금 미납 시 자격이 정지된다는 점에서 중앙종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종회 측은 △업무상배임 및 횡령에 대한 고등검찰청의 재수사 명령 △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적 하자가 없는 점 △불신임 결의는 사회법 결과와 무관 등을 반박근거로 내세워 맞서고 있다.

중앙종회 관계자는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법적 · 제도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서 임시회를 거쳐 종법을 보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에도 총무원은 청사를 폐쇄하고 종무 인수인계를 거부했다.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도들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존중 · 이해 갖추지 못해 우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의례 논란에 입장문 발표



은해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 황 대표는 행사 내내 공수자세만을 취하고, 관불의식도 거절했다. 사진제공=BBS불교방송

"번뇌 속에 푸른 눈을 여는 이는 부처를 볼 것이요, 사랑 속에 구원을 깨닫는 이는 예수를 볼 것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은해사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합장 · 반배 · 관불 등 모든 불교의례를 거부하면서 물의를 일으키자 2006년 당시 조계종 종정 도림 법전 대종사의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가 다시 등장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만당)는 5월 2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의례 논란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평위는 "황 대표가 믿고 따르는 종교와 신앙생활을 존중한다. 다만 황 대표가 스스로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자연인이나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대정당의 대표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참석한 것이 분명함에도 개인의 입장만 고집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이어 "황 대표의 모습은 단순히 종교의 문제를 넘어 상식과 합리성, 존중과 이해를 갖추지 못한 모습이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오로지 나만의 신앙을 우선으로 삼고자 한다면, 공당의 대표직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개인의 삶을 펼쳐 나가는 것이 황 대표 개인을 위한 행복의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평위는 "설사 내가 섬기지 않는 스승이라 하더라도 지식인이자 교양인으로서 그 예를 갖추는 것조차 손사래 칠 정도의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사회를 얼마나 행복하게 이끌고 나갈지 우려된다"며 "10여 년 전 법요식장에서 거룩한 스승들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직접 일러주신 종정예하의 봉축법어를 황 대표님께 전해드린다. 그 뜻을 화두삼아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깊이 참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대표는 5월 12일 영천 은해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했지만 행사 내내 합장이 아닌 공수(拱手) 자세를 취했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사홍서원 등 불교의식이 진행될 때 목탁에 맞춰 반배조차 하지 않았으며, 다른 내빈과 함께 가장 먼저 관불의식 참여자로 호명됐지만 손사래를 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황 대표는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할 때도 합장하지 않고 악수로 인사해 불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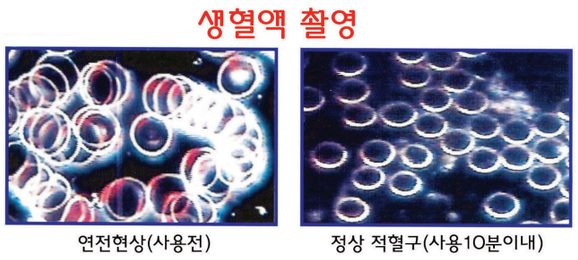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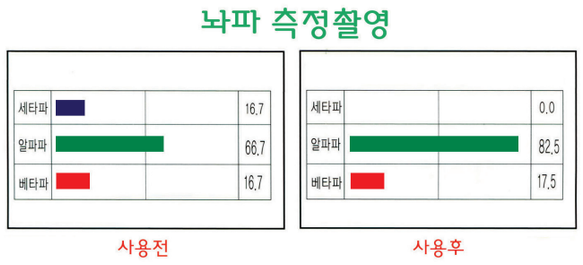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